

LNK 주간기도 0312

1. 전쟁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에 위치한 주요 군수공장에 당 창건 80 돌과 9 차 당대회를 맞아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떨치도록 5 대 과업을 빠르게 달성하라는 1 호(김정은) 방침이 하달됐다. 5 대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 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 1 만 5 천km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등으로, 지난 2021 년 8 차 당대회 당시 채택된 국방력 발전 5 개년 계획에 제시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령혼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다”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마태복음 11 장 28 절부터 30 절 말씀으로 권고하신 주님, 허물어져가는 체제와 사상을 지키기 위해, 굶주린 백성과 민생은 외면한 채, 전쟁 준비와 살상무기 개발에 목매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어 주님께 배우도록 북한을 성령과 말씀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묵은 것들이 기경됨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억압의 사슬이 끊기고 복음이 자유로이 선포되게 하소서



“북한이 강력한 통제를 하는 나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한 통제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 가이드에게 보고해야 했다. 하루는 ‘북한·러시아 우정의 집’을 관광한 뒤 방명록에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라고 적었는데, 가이드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방문 일정 중에는 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탄도미사일의 목표물 명중 장면을 형상화한 무용을 선보였다.” 북한 관광 재개 이후 북한을 다녀온 한 영국 유튜버의 후일담이다. 억압이 그치고 복음이 전해져 북녘의 백성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너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가난하다는 리유로 착취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들을 탈취하는 자의 생명을 탈취하실 것임이라”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잠언 22 장 22 절 부터 23 절 말씀으로 과도한 억압과 통제, 단속과 처벌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을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열어 주사 탄압의 사슬이 풀리고 복음이 전해져 생명과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북녘 땅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북한의 가치관이 사라지게 하소서



북한 주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급적 기준에 따라 취급된다. 이런 이유로 체제에 불응하면, 가차 없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인도 처단 대상이며, 남한 사람들도 정치범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가치관은 앞으로 통일 시에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이 사람들을 계급적인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역대하 7 장 14 절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계급적 성격을 부여해 자신들의 체제에 불응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북한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북한 땅에서 자행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 중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물질화하는 뿌리 깊은 유물론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20 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가 사라지게 하소서



북한에서 정치범은 수령 우상화를 반대하거나 수령 사상에 어긋나는 다른 사상, 즉 기독교 사상 등을 가지고 침투하는 자를 말한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에서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5~10 개소에 약 20 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이 확인된 정치범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군의 14 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군의 15 호 관리소, 함경북도 명간군의 16 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시의 25 호 관리소이며,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하는 평안남도 북창군의 18 호 관리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4 만에서 9 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마태복음 5 장 10 절에 말씀하신 주님, 수령신격화 체제를 위협하는 자를 정치범으로 단죄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무수한 백성을 살상한 북한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살인, 그리고 노동 등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러한 죄악이 믿는 자들에게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 팔로 막아 주시고 저들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취 주소서



“과거 공설운동장에서 인민반에 동원되어 5000~6000 명이 모여 공개처형을 봤다. 처형 전에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죄명은 반역죄였고 범죄 사실은 성경책을 소지하고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다. 처형 이후 그 가족들은 모두 실종됐고 그 집 재산은 몰수됐다. 너무 무서웠다. ‘하나님 소리만 해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됐고,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령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거나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실린 어느 탈북민의 증언이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와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드러내려 함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으깨어지지 않고 막다른 길에 들어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메여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요”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북한의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사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과 공개재판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믿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짚어진 성도들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취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해와 탄압에도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북한에 세워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LNK0312)



1. 가자에서 하마스의 집권을 막아 주시고, 재건 방식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흐르게 하소서
2. 서안지구에서 테러 세력이 계속 성장하고, 이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대테러 철벽작전으로 인해 정세가 불안하며 테러와 전쟁으로 아랍인들의 생활은 곤고합니다. 이제는 전쟁 국면이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게 하시고, 두 민족 간에 증오와 복수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용서가 스며들고 이것이 해법이 되게 하소서
3. 팔레스타인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를 찾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고 따르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소서

MissionServiceCenter 사역을 위한 기도

1. J지역과 B지역 연합사역을 위한 MSC 법인 설립 작업을 주께서 인도해 주소서.
2.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4월부터 월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나 학부모의 반발 없이 성령의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준비 중인 제자양육 사역을 통해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입원 중인 아와드가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3. G지역에서 온 가정 중, 집으로 돌아가려고 허가를 대기 중인 한 가정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린 손자가 수술을 받고 돌아갈 문을 열어 주소서. 나머지 가정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